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 6월2일 개최

〈유목민〉

캠핑 하며 IT 기반 소통·교류 통해 공동체 문화 만들어 가는 '유목민의 삶' 을 축제로 즐겨

새만금개발청은 오는 6월 2일~4일 새만금 오토캠핑장 일원에서 새만금 개발청이 주최하고, KBS미디어가 주관하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새만금의 대표 축제가 될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캠핑을 하며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과 소통하고, 경제 활동을 하는 일명 '도시 만들기(City-making)'가 주요 테마이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 페스티벌은 '탄생 노마드'라는 주제와 '우리는 미친 것이 아니다(NO MAD), 나를 찾는 것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화려한 막을 올릴 예정이다.

페스티벌에서 '노마드(NOMAD: 유목민)'는 '정보통신기술(IT)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사람들과 소통, 교류하며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개인 이자 집합체'로서, '미래의 국제도시 새만금의 새로운 시민상'을 상징한다.

참가자들은 '노마드'로서 미래 희망의 땅이지만 현재는 황무지인 새만금에서 유목민의 삶을 축제로 즐기고, 노마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자신을 찾아가게 된다.

주요 프로그램은 황무지에서 즐기는 캠핑 마을, 나를 표현하는 창조적 활동 노마드 아바타 설치 예술, 어울리며 소통하는 월드 뮤직, 설치 예술을 볼사르며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불의 제전으로 구성된다.

특히, 아바타 설치 예술과 함께 진행되는 자신에게 편지쓰기는 페스티벌의 핵심 활동으로, 억눌린 자신의 삶과 스트레스를 털어내며 희망찬 미래에 대한 다짐과 약속을 담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밤, 불의 제전에서 대형 설치 예술 작품과 아바타, 편지 등을 같이 불사름으로써 페스티벌 이후 새로워진 나를 만나게 된다는 스토리이다.

페스티벌 기간에는 신선한 지역 특산물과 음식, 공예품 등을 판매하는 노마드 마켓이 운영돼 캠핑과 축제 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페스티벌 참여는 사전 예약제(외국인 참여 가능)로, 신청을 통해 캠핑 사이트 1개를 2박 3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 예약을 하지 않은 참가자는 당일 방문객으로 축제 관람이 가능하다.

페스티벌 참가비는 5만원이며, 설치 예술, 재능기부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경우 최대 3만원까지 마켓상품권으로 돌려 받아 노마드 마켓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전북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 개최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진행 정무부지사 주재로 2017년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해 제4차 산업혁명 대응 우리 도 신산업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2017년도 운영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노마드 페스티벌은 도시 만들기(city-making)라는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축제로서 새만금을 세계에 알리는 핫 불이 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축제를 성장시키고, 전북도,군산시,김제시, 부안군 등 지자체와 협력해 새만금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드론 체험 행사, 새만금 노마드 건축 공모전 등 부대 행사가

진행되며, 인근에서 열리는 '바다의 날' 행사의 동력보트,카약,해양어벤처 등 해양스포츠 체험과 함께 아름다운 고군산군도까지 즐길 수 있다.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 15% 늘어

여성농업인 생생카드가 지원기준 완화 및 사용업종 확대에 따라 지원 신청자가 전년에 비해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3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신청,접수결과 1차 신청자 1만1,290명 중 1만1,262명을 사업대상자로 확정했고, 2차 신청자 1,812명에 대해서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전년 1만1,347명 대비 15% 증가한 실적이며, 특히 1차 신청 시 인

원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인문매체 등 적극적인 사업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지원기준 완화 및 가맹점 확대로 생생카드 사용자의 만족도가 높아 신청자가 많은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농업인은 관할 농협은행에서 카드를 발급받아 연간 12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한도 내에서 올해 말까지 미용실, 화장품점, 영화관, 찜질방, 수영장, 서점 등에서 사용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장애아동 '감각통합체험관' 개설·운영

전북장애인복지관이 장애아동의 신체발달 및 오감민족을 위한 '오감 북돋움, 창의력 쑥쑥 감각통합체험관'을 개설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설한 '감각통합체험관'은 장애아동의 복지증진과 보다 나은 치료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400만원의 사업비 지원과 특수교육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전북장애인복지관에 각종 장비와 체험도구를 갖추고, 장애아동의 전반적 신체발달 및 다양한 신체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체험공간으로 조성했다.

'감각통합체험관'은 감각촉진과 신체발달을 위한 전문 체험관으로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카드를 소지한 전북지역 장애아동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회당 치료 단가는 2만 7,500원으로 전북지역 장애아동들의 성장 발육 및 오감 민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체험관의 이용 및 치료 신청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북장애인복지관(☎222-9999)으로 문의하면 된다.

인재용 기자

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 선정 확정

'군산 예술의 전당 테마가로 조성' '임실 오수역 주변 경관개선'

전북도는 도시 및 농촌지역 경관디자인 개선과 지역경쟁력 제고를 위해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를 위해 도는 군산시 '군산 예술의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 등 7개 공모신청 사업에 대해 외부전문가가 만점을 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0월에는 3개 시도가 공동개최하는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도 계획돼 있다.

공모 선정대상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 선정된 '군산 예술의 전당 테마가로 조성사업'과 '임실 오수역 주변 경관개선 사업'은 선도 사업으로서의 파급효과와 사업이후 지역의 경관개선 효과 등을 고려해 선정했고, 선정된 지자체에는 경관디자인 개선을 위한 사업비 중 도비를 2년간 2억9,600만원씩 지원한다.

인재용 기자

도,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순회 설명회 실시

자연친화적인 장례문화,장사시설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더욱 확산시키기 위한 운동이 전개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연계해 각 지역의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대학, 이통장협의회 등을 대상으로 '자연친화적 장례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별 순회 설명회'를 실시한다.

설명회는 자연장 교육영상 시청, 견학하고 품위있는 친자연적 장례문화

안내, 불립묘지 설치예방 안내, 자연장지 조성사례 등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장례방법과 용품 등을 정할 수 있는 '장수행복노트'도 제공한다. 도는 이를 통해 고비용, 체면치레 문화에서 벗어나 고인(故人)의 삶을 기리며 품위 있고 겸손한 장례문화를 확산시키고,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후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연장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장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인재용 기자

전북-전남-광주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 추진

광역투어버스·문화기행·공정여행·대한민국관광박람회 공동 참여 등

전북도와 전남, 광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호남권관광진흥협의회 사업이 해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어 지역관광발전에 청신호를 밝히고 있다.

우선, 전북도는 전라남도,광주시와 공동으로 전라도 천년 기념사업으로 광역연계형 명품여행상품 운영, 청소년 문화관광교류, 국내외 관광객 유치 위한 관광박람회 공동참여 및 홍보마케팅 사업,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역투어버스 운영은 3개 시도에 걸쳐 있는 자연, 역사, 문화, 음식 등 각각의 매력 있는 유무형의 자원들을

연계해 전라도 천년 동안의 발자취를 하나로 묶어 명품여행상품으로 사업화 할 계획이다.

명품여행상품은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떠나는 전라도 방방곡곡 여행으로 그동안 여행작가, 여행블로거, 사진작가, 로케이션 매니저, 푸드스타일리스트들에 의해 찾아낸 보물을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명품여행 코스로 엄선해 1년 365일 떠나고 싶은 여행자들의 발걸음을 유혹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지역청소년을 대상으로 3개 시도가 여행속에서 전라도 역사문화를 배우고 인문학적 소양을 키울 수 있는 사업도 준비중에 있다.

인문학 속 장소를 찾아가는 문화기행을 비롯해 둘러보기식 여행에서 벗어나 지역주민과 함께 소통하고 향토의 문화를 즐기며, 여행지의 삶과 문화, 자연을 존중하는 여행 자세를 배울 수 있는 공정여행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대한민국관광박람회(8월)에 3개 시도가 공동 참여해 전라도의 맛, 멋 등 여행감성 코드를 박람회를 통해 공격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특히, 사드(THAAD, 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배치 결정으로 한-중관계가 냉각되면서 중국의 자국민 해외여행객 수출 제한으로 단체관광객이 지속

적으로 감소될 것을 고려해 인도를 비롯한 동남아와 일본 등으로 시장 다변화를 위해 해외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10월에는 3개 시도가 공동개최하는 '호남권관광진흥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도 계획돼 있다.

인재용 기자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3년 연장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2020년 5월 22일까지 3년 연장된다.

'특례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의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규정에 따라 분할이 제한됐던 토지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대상은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지상에 건물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 상당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인재용 기자

